환경오염으로 예방가능 질병 25% 발생

지난 92년 지구정상회의 이후 세계 환경은 급속히 악화돼 예방가능한 질병의 25%가 열악한 환경조건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유엔보고서가 지난 6월 18일 밝혔다.

"대기와 수질, 태양오염이 전세계에 걸쳐 악화돼왔다."고 윌프리드 그라이셀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는 말했다.

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WHO보고서는 자살에서 주방위생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환경"이란 주제 아래 종합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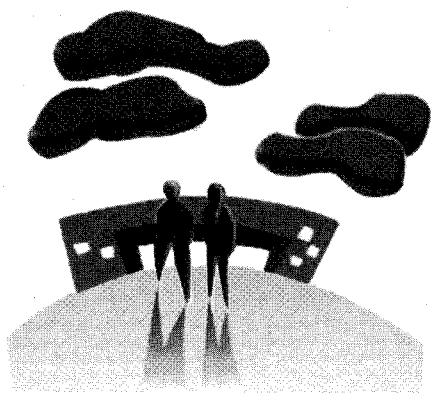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어린이, 특히 제3세계 어린이들이 환경오염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지적, 예방가능한 질병에 걸린 아동중 3분의 2가 열악한 환경조건 때문에 발병했으며 최빈국 5세 이전 유아사망자의 20% 이상이 환경오염으로 숨졌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경우 환경요인으로 인한 유아사망률은 1% 미만에 머물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호흡기 질환과 설사며 세계적으로 약 3백만명이 대기오염 때문에 원래 수명보다 일찍 죽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2백80만명 가량은 실내 공기오염으로 사망했는데 이들 사망자는 대부분 실내 공기 오염이 극심한 개도국 국민들이다.

보고서는 매년 1억2천5백만명이 산업재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작업장이 가장 위험한 환경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전세계 노동자들은 열악한작업환경뿐 아니라 불임, 암, 약물중독, 근육마비, 정신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과 방사능, 기계적인 위험 등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교통사고와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는 향후 30년간 배증할 것이며 화재로 인한 부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 다이옥신 배출한도 법적 규제 추진

일본 후생성 자문위원회는 심각한 건강문제를 유발하는 다이옥신의 배출한도를 법적으로 권고했다고 후생성 관리가 지난 6월 24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 나오는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한도를 0.8피코그램(pg)으로 권고하고 있을 뿐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후생성 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23일 내놓은 보고서는 다음달중 상급 위원회에 제출돼 승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후생성은 배출량 규제의 연내 입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후생성 관리는 전했다.

환경청은 이달초 도쿄지역의 다이옥신 배출수준이 정부 권고 제한량의 두 배인 1.6pg에 달하며 전국 21개 조사지역중 11개 배출량도 정부 권고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1pg은 1분의 1그램이다.

개발·도시화로 지구환경 악화 촉진

지난 9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셔우드 롤랜드 박사는 지난 6월 24일 도시화와 인구증가, 개발로 인해 지구 환경이 중대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롤랜드 박사는 미 토론토에서 개최된 과학기술과 개발에 관한 국제환경회의에서 지구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메탄 등의 배출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롤랜드 박사는 특히 공기중 메탄농도가 지난 78년 이후 약 16% 증가했으며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쌀 증산을 위한 기술개발 등 인간 활동과 많이 연관돼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1900년에는 미국에서 인구 1백만명 이상인 도시가 13곳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백8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이같은 도시화가 계속되면 오는 2050년에는 지구환경에 견딜 수 없는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과학기술이 지구 대기와 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해답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롤랜드 박사는 냉장고와 스프레이 등에 사용되는 염화불화탄소(CFCs)인 프레온가스가 대기권 오존층을 감소시키는 것을 증명해 노벨상을 수상했다.

유엔환경특별총회 성과없이 폐막

지구촌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환경특별총회가 구체적인 성과 없이 지난 6월 27일 폐막됐다.

92년 리우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들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구환경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3일 개막된 이번 총회에서 1백60여국 대표들은 지구온난화 대책, 환경개발기금 출연, 삼림보호 문제 등에 대한 선후진국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치선언' 채택에 실패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목표 설정을 거부했을뿐 아니라 리우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선진국 국민총생산(GNP) 0.7% 지원에 대한 시한 설정 문제에도 소극적 입장을 보여 개발도상국들의 비난을 샀다.

라잘리 이스마일 유엔총회 의장은 정치선언 채택 실패는 선진국들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결여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환경보호를 위한 유엔의 역할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스마일 의장은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60쪽 짜리 폐막성명은 '일부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2년 리우환경정상회담에 이은 제2차 환경정상회담 성격을 갖고 있는 이번 총회는 리우 선언의 정신을 확인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같은 당초 목표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고 환경운동가들이 지적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개발 자금 및 기술 제공을 거부한 것이 총회 실패의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국제환경보호 단체인 '지구의 친구들'의 케빈 더니언 회장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개발도상국들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우환경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결의는 오는 2000년까지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규정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구속력

있는 시한 설정을 하지 못한채 오는 12월 도쿄에서 열리는 지구환경회담에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채택된 폐막성명은 개도국 환경개발을 위한 선진국의 GNP 0.7% 출연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실현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데 그쳤다.

환경 총회는 수질 오염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내년에 파리회담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두만강하구생태계 중국 개발로 위기"

각종 희귀철새와 어류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인 두만강 하구가 중국측의 경제개발에 따라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러시아의 일간 투르드지가 지난 7월 1일 보도했다.

투르드지는 이날 블라디보스토크발 기사를 통해 최근 체결된 러시아-중국 국경협정에 따라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진출할 수 있게 된 중국이 북한-중국-러시아 3국 접경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이에따라 두만강 하구의 생태계 보전지역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블라디보스토크 해양생태계 연구소 블라디미르 코시야노프 소장의 말을 인용, "중국측이 불과 몇몇 부락을 조성하는 개발초기단계에서부터 두만강 하구에서 기형 물고기가 발견되는 등 오염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코시야노프 소장은 이어 "만약 중국 대륙의 두만강 연안지역에 항구가 건설되면 하구 오염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중국측은 이같은 오염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중국측의 계획대로 선박이 두만강을 통과하려면 17㎞ 길이의 강을 최소한 15m이상의 깊이로 파내야 한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 두만강 하구의 독특한 생태계는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보라카이섬 '오염' 공방 한창

필리핀 관광부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고용해 해양오염 문제로 물의 를 빚고 있는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 보라카이섬 해안에서 해수욕이 가능한 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지난 7월 1일 밝혔다.

미나 가보르 필리핀 관광장관은 빅터 라모스 환경장관이 보라카이섬에서 수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지 하루만인 이날 다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라모스 환경장관은 3개월동안 보라카이섬 각지에서 채취한 샘플을 연구한 결과,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환경기준에 맞는 곳은 전혀 없었다"며 "재난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의 배설물이 하수관을 통해 곧장 바다로 흘러들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가보르 관광장관은 라모스 환경장관의 발표가 야기할 파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같은 조사결과는 조사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12개월동안 조사하면 보라카이가 안전하다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관광부 관리들은 필리핀 최고 관광지중 하나인 보라카이가 오염됐다는 보도로 명성이 크게 크게 손상됐으며 여행객들의 예약취소 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필리핀 중부 파나이지방에 위치해 부드러운 모래와 야자수로 둘러싸인 해변으로 이름난 보라카이섬을 찾은 국내의 관광객은 지난해 20만명에 달했다.